제10강 원칙의 분석론

◆원칙과 범주
(1교시)
※학습목표: 원칙론과 범주론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

▲원칙론의 의미
「범주야말로 그것이 가능한 경험에 관여함에 의해서 오성의 모든 순수한 선천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 일반에 대한 범주의 관여가 오성 사용의 모든 선험적 원칙을 완전하게 또 체계적으로 명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의 분석론에서 배웠던 12개의 범주들이 오성의 선험적인 인식체계다. 이 범주가 그대로 원칙론으로 이어진다. 다만 개념은 어떤 개념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이고, 원칙은 개념들이 결합해서 활용되는 방식(원리)을 다루는 것이다.

▲분석판단의 원리 모순율
-칸트가 역점을 두어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이다. 특히 선험적 종합판단이다.
-그러나 분석판단도 중요하다. 분석판단들을 지배하는 일차적인 원리는 모순율이다. 모순율은 어떤 사물, 주어, 주체, 실체에 상호 모순되는 술어, 속성이 결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모순을 지배하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모순에 부딪친다. 모든 모순이 거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절대모순. 절대모순은 모든 모순들의 근거로서 존재(유)와 무 사이의 모순이다. 이 사이는 결코 매워질 수 없는 단절을 이루고 있다.

▲보편이 필연적인 종합판단
「종합적 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제는 선험적 논리학에 있어서는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만일 선천적인 (보편적이고 필연적인)<u>종합판단</u>의 가능성과 그와 동시에 선천적인 종합판단의 타당성의 조건과 범위가 문제 된다면, 그 과제는 유일한 과제다.」
-종합적 판단은 우리에게 인식의 내용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종합적 판단은 우리가 경험하면 쉽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종합판단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종합적 판단'이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종합적 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논리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선험적 논리학의 수행(순수오성의 범위와 한계 규정)
「이런 중요한 일이 완성된 뒤에 선험적 논리학은 그것의 목적 즉 순수오성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순수이성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론 3장이다. 바로 현상계와 물자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객관적 실재성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선천적 인식에다 <u>객관적 실재성</u>을 준다. 그런데 경험은 현상들의 종합적 통일에 의존한다. 즉 현상 일반이라는 대상의 개념에 따른 종합에 의존

www.artnstudy.com

한다. 이런 종합이 없으면 경험은 인식이 되지 않겠고, 지각들의 광상곡일 것이다.」
-객관적 실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지 않다.
-순수 오성의 종합적 원칙을 밝혀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오성이 이 세계를 인식할 때에 사용하는 원칙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범주와 원칙
「**범주표가 원칙표에 대한 인도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원칙은 범주를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규칙 이외의 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직관의 공리 2.지각의 예료 3.경험에서의 유추 4.경험적「일반」사고의 요청**」
-범주는 오성이 이런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은 경험할 때에 그런 틀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범주론에서 원칙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첫 번째 우리 범주는 양의 범주였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오성 속에 가지고 있는 양이란 범주를 우리 경험 속에서 적용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원칙이 직관의 공리다. 이것은 외연량과 연관된다.
-외연량은 데카르트의 연장과 연관된다. 데카르트는 영혼과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연장 extension으로 환원한다. 모든 사물의 근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원리였다.
-그러나 칸트에게는 사물들을 직관할 때, 항상 전제되는 공리다. 데카르트에서보다 훨씬 축소된 위치다.
-두 번째는 지각의 예료(豫料anticipation기대)다. 질료를 예상하는 것이다. 지각의 예료는 직관의 공리가 외연양의 관계된다면 지각의 외료는 intension다. 내포도(강도)다.

	판단	범주	도식		원칙
분량	저칭	단일성	시간계열	수	직관의 공리: 모든 직관은 외연량이다.
	특칭	수다성			
	단칭	저체성			
성질	긍정	실재성	시간내용	도-충실시간 공허시간	지각의 예로: 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실재적인 것은 도를 가진다.
	부정	부정성			
	무한	제한성			
관계	정언	실체와 우유성	시간순서	지속	경험의 첫째 유추: 실체는 지속한다.
	가언	이 과 성 과 의존성		규칙에 따른 후속	경험들의 둘째 유추: 인과법칙에서 생긴다.
	선언	상호성		공존 즉 동시	경험의 셋째 유추: 일간적 상호작용이 있다.
양상	개연	가능성-불가능성	시간총괄	표상들의 종합을 시간조건들과 합치시킴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
	실연	현존성-비존재성		일정시간 중의 현존	
	필연	필연성-우연성		모든 시간 속의 현존	

◆양과 질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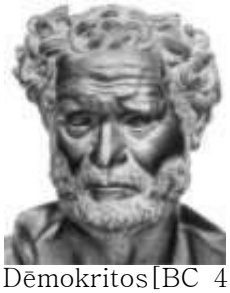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2교시)
※학습목표: 외연량과 내포량이 인식에 있어서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는지 살핀다.
▲직관의 공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직관의 공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모든 직관은 외연량이라는 것이다.」
「지각 예료를 〔가능케 하는〕 원리는 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내포량 즉 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칸트는 직관과 지각감각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직관은 넓은 의미의 직관이 아니라 수학적 직관이다.
-공간을 직관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외연이다.

▲공간전체의 조각
「부분의 표상이 전체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부분의 표상이 전체의 표상에 필연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나는「외연량」이라고 본다.」
-외연이란 공간 전체의 조각들이다. 그 조각들을 붙여 모아서 공간전체가 구성된다.
-엄밀히 말해서 공간전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면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외연량과 직관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한갓 직관은 공간이거나 시간이기 때문에, 직관으로서의 모든 현상은 외연량이다. 모든 현상은 각지에 있어서 계속(부분에서 부분에로) 종합함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이미 집합체(미리 앞서 주어진 부분들의 모임)로서 직관된다.」
-공간의 조각들을 다 합해서 점점 더 큰 공간조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했다.
-가장 작은 공간이란 것은 직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공간도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관하는 것은 대개 이미 일정하게 틀 지워진 공간을 직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체는 이미 공간의 집합체이다.

*참고사항
-Dēmokritos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는 원자에 대해서 말했다. 이는 무한히 자르고서 더 이상 잘리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이다. 이를 흔히 '지성의 칼날'로 잘라서 보았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공간도 자를 수 있다.


Dēmokritos[BC 460?~BC 370?]

▲실재와 도degree
「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내포량 즉 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직관은 사물의 질quality이 아니라 양quantity을 직관하는 것이다.

▲양(외연량)과 질(내포량)의 구분에 따른 비판
-칸트: 칸트의 경우 양과 질을 나누어 설명한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는다면 과연 마음과 질에 대한 우리의 지각(직관)이 분리되어 이야기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칸트도 꼭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기보다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양과 질을 (양, 질, 관계, 양상으로) 정확히 나누고 있다. 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것, 듣는 것 등 자체가 이미 양과 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환원론: 근대 이후에 자연과학적 사고는 질을 양으로 환원시키려고 한다. 과연 질은 양 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반대로 양을 질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양은 질적인 틀에서 공간적인 측면을 떠놓은 것이라 보는 것이다. (베르그송)
-일원론: 질과 양이 하나라고 보는 이도 있다. 양이나 질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하나라는 것이 있다. (스피노자)

*참고사항
직관은 공간적인 것에 대한 직관이며, 지각은 실제의 질을 만나는 것이다.

▲현상과 질료
「현상들은 직관보다 이상으로 어떤 객관 일반에 대한 질료material (이것에 의해서 시공 안에 실재하는 것이 표상된다.)를 포함한다.」
-여기서 질료는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내용을 말한다. 인식주체가 사물에 대해 갖는 내용적인 것에 대한 의미의 질료(인식질료)다.

▲예료
「나로 하여금 경험적 인식에 속하는 것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또 규정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인식을 예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의심할 것도 없이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프로렙시스prolepsis라고 했던 말이다. (중략) 시공에 있어서의 순수한 규정들을 형태에 관해서건 양에 관해서건 현상의 「예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순수한 규정들은 후천적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천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일반(어떤 특수한 감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으로서의 「모든 감각」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발견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서」예료라고 불리어 진다. 「특별한 의미에서」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바로 경험에서만 취해올 수 있는「경험의 질료」에 관한 「것」을 경험에 앞질러 취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각의 경우에 사정은 사실상 위의 가정과 같다.」
-prolepsis는 미리 포착하는 것이다. (미리 잡다.)
-도degree. 강도intensity. 즉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인식 질료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저항을 만나는 것이다.
-내 앞에 빨간 색이 있다. 빨간색이 점점 흐려진다. 흐려진다는 것은 빨간색의 강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만약에 그 강도가 0이 되면, 내 눈 앞에 그것이 실존했다가, 내 시선은 뚫려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을 지각한다고 할 때 거기서 작동하는 가장

www.artnstudy.com

기본적인 원리는 강도다.

▲내포량

「단지 단일성으로만 각지되고, 부정성 즉 영에의 접근에 의해서만 수다성 〔강도의 강약〕 이 표상될 수 있는 양을 나는 내포량이라고 한다.」

-부정성negativity은 '없다', '아니다' 이다.

-내포량은 이미 질을 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전제한다. 내포량이라 할 때,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칸트가 내포량이라 한 것을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또한 공간만을 직관하는 것과 인식내용(실제내용)을 지각하는 것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의 연속성 1

「불량에는 그 이상 더 적어질 수 없는 최소의 부분은 없다(어떠한 부분도 단일이 아니다)고 하는 양의 성질을「분량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공간과 시간은 연속적 양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어떠한 부분도 한계(점과 순간) 같은 극한들 간에 싸이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 자체가 다시 공간이거나 시간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 분량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량이 있다는 것이 원자론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간적 외형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양자학도 양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본다.

-칸트는 연속성의 원리, 무한분할을 얘기하고 있다. 공간의 부분이든 시간의 부분이든 그것은 항상 한계선limit로 쌓여 있다. 그렇다면 더 작은 한계선을 왜 못 만드냐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2

「그러므로 공간은 여러 공간에서, 또 시간은 여러 시간에서 성립한다. 점과 순간은「극한」들에 불과하다. 즉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는 위치임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치는 언제나 자신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직관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갓 위치는 공간과 시간에 앞서서 주어질 수 있는 요소요, 이런 위치로부터는 공간이나 시간이 합성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양을 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이런 양의 산출에 있어서의 (생산적 구상력의) 종합은 시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특히 우리는 흐른다(즉 흘러간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도degree와 연속성은 어디서 끊을 수 없다. 이를 유전적이라 표현하고 있다.

-자를 수 없는 것을 보통 흐른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공간적 연속성과 시간적 연속성은 조금 다르다. 왜냐면 시간적 연속성은 흘러간다는 운동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직관과 지각

「이렇게 모든 현상 일반이 연속적인 양이로되, 직관의 면으로는 외연량이요, 한갓 지각(감각 따라서 실재)의 면으로는 내포량이다.」

-내포를 양적인 것과 대비되는 질적인 것으로 보느냐, 직관과 지각은 대비되지만 지각된 질들도 내포량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내포량이란 것이 이미 양적인 것을 포함하고

www.artnstudy.com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시간의 선험성과 한계.

「우리는 양 일반에 관해서는 단지 유일한 성질만을 즉 연속성만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으나, 모든 성질(현상의 실재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것의 내포량 이상의 것을, 즉 현상은 도를 가진다는 것 이상의 것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할만 하다. 이외의 모든 것은 경험에 맡겨져 있다.」

◆관계와 양상의 원리

(3교시)

※학습목표: 관계의 원리와 양상의 원리를 살핀다.

www.artnstudy.com

▲보편적이고 필연적 결합

「「경험의 유추」의 원리는 경험은 지각들의 (보편적이고) 필연적 결합이라는 표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은 넓은 의미의 경험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과학적 경험이다. 그래서 필연적 결합이라 한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합리적(과학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계에서의 경험의 원칙은 지각들의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결합이다.

▲관계맺음과 시간

「식의 세 양상은 지속, 계기, 동시존재(동시성)다. 그러므로 현상의 모든 시간관계에 관한 이상의 세 규칙은 (이 규칙에 좇아서 우리는 현상의 모든 현존을, 모든 시간의 통일에 해서 규정할 수 있거니와) 일체 경험에 선행하겠고, 그런 세 규칙이 비로소 경험하게 한다.」

-경험이란 것은 어떤 지각들의 관계맺음(결합)이다. 그런데 지각들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지속, 계기, 동시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 계기, 동시성'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시간 속에서 지각들을 종합해서 경험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지속, 계기, 동시성'이다.

▲통각의 필연적 통일

「이하의 세 유추의 보편적 원칙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한 경험적 의식(지각)에 관한 통각의 필연적 통일에 의거한다.」

-통각의 통일(주체의 통일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지속한다, 계기한다, 동시성이란 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시간규정

「모든 지각들의 시간관계 중에 있는 이 종합적 통일은 선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합적 통일은「모든 경험적 시간규정은 보편적 시간규정의 규칙에 종속해야 한다」는 법칙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경험의 〔세〕 유추는 이와 같은 규칙이 아닐 수 없다.」

-관계의 범주는 '실체와 우유성, 원인과 결과, 상호작용'이었다.

-실체와 우유성에 대한 관계는 실체의 지속에 근거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사건들의 계기에 근거한다. 상호작용은 시간에 있어서의 동시성에 근거한다. 관계의 범주에서 원칙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지속, 계기, 동시성

「첫째 유추. 실체지속에서 생기는 원칙: 현상이 아무리 변역해도 실체는 지속하고 자연에서의 실체의 양은 증감이 없다.」

「둘째 유추. 인과성 법칙에 따른 시간적 후속에서 생기는 원칙: 모든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에서 생긴다.」

「셋째 유추. 「상호작용 혹은 상호성의 법칙」에 따른 동시존재로 보게 하는 원칙: 모든 실체는

www.artnstudy.com

공간에서 동시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한에서 일관된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있다.」
-실체와 우유성에 대한 관계가 시간의 지속에 근거한다는 의미다. 실체가 아닌 우유성은 지속하지 않는, 지속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란 것이다.

▲범주론과 원칙론
-범주론과 원칙론의 구분은 개념을 가지고 말하느냐, 원칙을 가지고 말하느냐의 차이다.
-개념의 범주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는 것이다. 원칙의 분석론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다.

*참고사항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고서 해야 할 작업
-과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가지고 들어갈 범주가 칸트가 말하는 범주 외에는 없는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려고 들어갈 때에 구사하는 원리가 과연 칸트가 말하는 것 외에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칸트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속성
「**내가 알기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철학자뿐만 아니라, 상식인까지도 이 지속성을 현상의 모든 변역의 기체로서 전제했고, 또 〔장차〕 어떤 시대이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리라.**」
-칸트는 실체는 불변으로 본다. 다만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관과 다르다. 칸트는 실체가 존재론적으로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적에 갖고 들어가는 틀, 원리다. 존재론적인 가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과정인 것이다.

*참고사항
칸트의 실체개념에 대한 비판
-니체 이후의 생성존재론의 가장 기본적인 시발점이 칸트의 실체개념을 버리는 것이다. 이 세계에의 가장 존재론적인 것이 becoming이라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실체가 있고 표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우유성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그 근저부터 생성된다.
고중세철학은 어떤 동일성을 전제하고 운동(변화)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왜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 이후로 생성존재론에서 우주는 애초에 변화다. 끝없는 생성이다.
때문에 불변의 것으로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생성이기 때문에 왜 개별 사물에 동일성이 생기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생성의 입장에서 동일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와 헤겔까지의 철학과 니체 이후의 생성존재론의 근본적인 차이다.

▲양상의 원리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
1.경험의 형식적 조건(직관과 개념에 관한)과 일치하는 것 〔현상〕 은 가능적이다.
2.경험의 질료적 조건(감각)과 관련하는 것 〔현상〕 은 현실적이다.
3.경험의 일반적(보편적) 조건에 의해서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이 규정되어 있는 것 〔현상〕 은

www.artnstudy.com

필연적이다(즉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양상modality(≒조동사)의 하위 범주는 가능성possibility, 현실성actuality, 필연성necessity이다.

-1. 어떤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의 조건을 채운다는 것이다. 경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채우는 것을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떤 사건이 경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줄 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경험의 형식적 조건은 직관과 개념이다.

-2 감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능성은 지금 확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시간과 연결해서 가능성이란 것은 언젠가 시간의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이란 것은 지금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필연적이란 것은 모든 시간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이다.

www.artnstudy.com